



96.4.12

김도형 기자

“신혼여행 때 치르는 다섯가지 전 쟁이 무엇인 줄 아세요.” 길가던 20대 젊은 남자는 이렇게 물으면서 스스로 답변한다.

“사위, 누워, 세워, 끼워, 자기 고마워”

이런 이야기는 질편한 술자리에서 오간 농담이 아니다. 지난 8일 현재 80만 가구가 가입해 있다는 케이블 텔레비전의 여성전문 채널인 동아텔레비전(채널 34)에서 지난 3월4일 내보낸 〈서세원의 코미디 클럽〉에서 방영한 내용이다.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 〈평양 무공해섹스를 아시나요〉라는 책을 쓴 귀순 북한동포 정성산 씨가 난데없이 등장해 평양의 성풍속과 관련한 음담패설을 늘어놓는다.

“당 간부는 에미나이 동무를 당당하게 해먹고, 안전원 동무는 안전하게 해먹고, 노동자들은 노골적으로 해먹습네다”

이 프로그램은 또 짬짬방에서 노닥거리는 기혼여성들을 등장시켜 “매

일 밤 한번 당해봐” “항수를 발랐더니 광란의 밤이었어” 등의 노골적인 대사를 남발했다.

방영 1시간 내내 섹스와 관련한 추잡한 내용으로 일관한 이 프로그램은 그러나 지난달 15일 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유혁인)로부터 가벼운 징계에 속하는 ‘경고’ 조치를 받았을 뿐이다. 이 프로는 밤 10시 이후 여성채널의 ‘탈선’ 수준을 보여주는 한 사례에 불과하다.

유선방송위가 올해 1월12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두달간 방영된 27개 채널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후심의 결과, 경고를 받은 프로그램 4개는 모두 여성채널의 프로그램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하나를 빼면 심야프로가 모두 선정성 문제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것이다.

11일 유선방송위에 따르면 지난 2월23일 지텔레비전(채널 35)이 방영한 〈수다편치 팡팡〉의 ‘간큰 리포터’ 코너에서는 남성리포터가 지나가는 여성을 붙잡고, 허리 가슴 등 신체부

위의 치수를 물어본 뒤 실제로 자를 사용해 강제로 재는 장면이 그대로 방영됐다. 같은 채널의 〈사랑 만들기〉(같은날 방영분)는 연예인 부부를 초대해 부부의 권태기를 다룬다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느닷없이 ‘성관계 횟수’ ‘테크닉’ ‘관계후의 만족도’ 등 섹스와 관련한 노골적인 대화 내용을 내보냈다.

지난 1월26일 방송된 동아텔레비전 〈남과 여 그리고 성〉의 경우도 ‘신혼의 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선정성 문제와 관련해 유선방송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동아텔레비전의 〈서세원의 코미디클럽〉(사진 왼쪽)과 지텔레비전의 〈수다편치 팡팡〉.

중 초대받은 신혼남녀를 상대로 “상대방의 성감대를 아느냐”는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특정 부위를 거론하면서 성관계 횟수, 체위 등 듣기 민망한 내용을 늘어놓았다. 심의를 피해간 〈남자 벗기기〉 〈토크쇼 결혼하지 마시다〉(이상 동아텔레비전) 등 여성채널의 심야프로들은 대부분 주로 섹스와 관련한 아슬아슬한 이야기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여성비하 프로그램의 양산 현상은 방송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위나 공공성 따위보다는 상품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일부 케이블텔레비전 제작진의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대해 두 여성채널의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시청자가 돈을 내고 보는 케이블채널과 지상파채널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케이블TV 여성채널 ‘성’묘사 민망할 지경

‘서세원 코미디클럽’ ‘수다편치 팡팡’등 징계받아